

2019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 디렉토리

활동기관: 개러지 뮤지엄
제 출 자: 이훈석

번호	구분	내용
1	기관 및 단체	로드첸코 아트 스쿨 (Rodchenko Art School)
2	공간	멀티미디어 아트 뮤지엄 (Multimedia Art Museum)
3	축제	세르게이 쿠료힌 국제 페스티벌 (SKIF: Sergey Kuryokhin International Festival)
4	행사	우랄 인터스트리얼 비엔날레 (Ural Industrial Biennial of Contemporary Art)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단체명	로드첸코 아트 스쿨 (Rodchenko Art School)		
유형	미디어아트 교육기관	장르	미디어 아트 (사진 포함)
운영주체	모스크바 시 문화부(The Department of Culture of the city of Moscow)		
소재지	모스크바	설립연도	2006년
기관현황	운영중		
홈페이지	http://www.mdfschoool.ru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없음, 총장 비서 Anna Rumyantseva	연락처/이메일	8 (499) 264-47-94 8 (499) 763-20-24 administration@mdfschoool.ru

기관 및 단체

2006년 설립된 로드첸코 아트스쿨은 러시아 유일의 사진 및 미디어 아트 정규 교육기관이다. 모스크바 시 정부 문화부에서 운영하며, 학사과정이나 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MFA 석사학위과정 수업을 3년간 진행한다. 매년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4개 학과당 10명씩 뽑는 셈이라 설립 13년째인 현재까지도 졸업생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학과는 다큐멘터리 사진, 예술사진, 비디오 아트, 멀티미디어 아트로 나누어진다. 교수진은 실기와 이론 모두 각자 분야에서 러시아 현대미술계에서 크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을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워크샵과 마스터 클래스,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졸업생들은 수는 많지 않으나 Hellerau Photography Award, World Press Photo, Creative Enterprise Award UK, Vienna Book Festival과 같은 사진 및 예술 관련 국제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에서 올해의 사진가로 선정되거나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선정되는 등 러시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여러 미술대학들 중 회화, 조소, 공예 등 전통적 형태의 미술교육을 하는 학과들

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의 레핀 미술아카데미, 수리코 프 미술아카데미, 스트라가노프 장식미술 아카데미 등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각종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학과나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미디어아트 학과들은 러시아 내에서 교류할 수 있을만한 교육기관이 없기에 전통적인 예술장르의 학과들과 비교하여 국제 교류의 저변이 비교적 좁을 수 밖에 없었다. 국내 대학들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학과들 또는 사진학과들과 로드첸코 아트스쿨간의 교류 프로그램(학생 작품 교류전시, 교환학생 등)을 제안한다면 국내 대학들로서는 국제교류의 저변을 더 넓힐 수 있고 학생들에게 창작을 위한 더 넓은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기관/단체명	멀티미디어 아트 뮤지엄 (Multimedia Art Museum)		
유형	미술관	장르	미디어 아트 (주로 사진과 영상)
운영주체	모스크바 시 문화부(The Department of Culture of the city of Moscow)		
소재지	모스크바	설립연도	2010년
기관현황	운영중		
홈페이지	http://www.mamm-mdf.ru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없음, 업무 총괄 관장 대리인 Olga Nestertseva	연락처/이메일	+7 (495) 637 11 22 / nestertseva@mdf.ru

공간

멀티미디어 아트 뮤지엄은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진 전문 공립 미술관으로서 세워진 '모스크바 사진 미술관(The Moscow House of Photography)'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으로서 2010년 새롭게 설립된 공립 미술관이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공립 미술관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에 미적으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전시장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모스크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들 중 하나이다. 전시장은 총 7개 층으로 이루어져있어 상당히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사진 전문 미술관이 조직의 근간이고, 현재도 미술관의 내부 기관으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아트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작품 전시가 전시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대한 양의 사진 작품 컬렉션과 비디오 아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작품도 컬렉팅 하고 있다. 1996년에 설립된 모스크바 사진 미술관이 시작한 사진비엔날레(Photobiennale)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사진비엔날레는 지난 2018년 제 12회, 즉 24년째를 맞이하였다.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는 '사진에서의 유행과 양식(Fashion and Style in Photography)'라는 비엔날레를 마찬가지로 격년으로 진행하며 이 두 행사의 큰 틀 내에서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소개되기도 하고 특정 작가나 그룹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시프로그램 외에도 'Silver Camera'라고 하는 신진 사진작가 발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공모전은 '건축', '인물', '일상'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문 수상자들의 상금 총액은 미화 5만 달러 규모이다.

멀티미디어 아트 뮤지엄에서 진행하는 사진 비엔날레에 아직 한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거나 한국 사진예술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개최된 전례가 없다. 지역적으로는 유럽 출신 작가들, 시기적으로는 지난 세기 작품들의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미술관의 전시 기획력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내의 사진이나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 (예: 고은 사진 미술관, 또는 백남준 아트센터 등)에서 국내 사진작가들, 또는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의 기획전을 제시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단체명	세르게이 쿠료힌 국제 페스티벌 (SKIF: Sergey Kuryokhin International Festival)		
	유형	현대음악축제	장르	현대음악
	운영주체	쿠료힌 센터 (Kuryokhin Center)		
	소재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설립연도	1996년
	기관현황	운영중		
	홈페이지	http://www.kuryokhin.net/skif/en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없음 프로그램 디렉터 Natasha Padabed	연락처/이메일	+7 (812) 322 42 23 info@kuryokhin.net skif.program@gmail.com
축제	<p>세르게이 쿠료힌 국제 페스티벌은 20세기 후반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실험음악에 큰 영향을 미친 현대음악가인 세르게이 쿠료힌의 이름을 딴 국제 현대음악 및 예술 페스티벌이다. 쿠료힌이 사망한 1996년 설립되어 SKIF 1회와 2회 페스티벌은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1998년부터 쿠료힌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p> <p>페스티벌은 2005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쿠료힌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2015년부터 쿠료힌 센터 건물은 재건축을 위해 폐쇄되어있는 상태다. 때문에 SKIF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무대에서 개최되고 있다.</p> <p>페스티벌의 장르적 범위는 재즈, 일렉트로닉, 클래식, 민족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적 음악의 경계 내에서 작업하는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르로 정의내릴 수 없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 및 퍼포먼스, 미디어 융합 예술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도 포함된다.</p> <p>SKIF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실험적인 현대음악가들과 아티스트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2019년 제 23회 페스티벌에는 한국 프리재즈 아티스트인 미연&박재천 듀오가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아티스트들은 유럽 국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아티스트들의 참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쿠료힌 센터는 러시아 문화부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주재한 다양한 국가들의 대사관은 물론 Institute Italiano di Cultura, Goethe Institute, Institute Frencais 등 국외 문화기관들과 협력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KOFICE와의 연계 및 후원을 통하여 SKIF에 한국 아티스트들을 고정적으로 출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러시아 현대음악계에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p>			
	기관/단체명	우랄 인더스트리얼 비엔날레 (Ural Industrial Biennial of Contemporary Art)		
	유형	현대미술 비엔날레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로스이조 국립 박물관 및 전시 센터 (The State Museum and Exhibition Center ROSIZO)		
	소재지	예카테린부르크	설립연도	2010년
기관현황	운영중			
홈페이지	en.uralbiennale.ru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없음 PR 담당자 - Tanya Nemirovskaya	연락처/이메일	8 (343) 289 91 32 8 (926) 582 42 04 uralbiennial@ncca.ru tnemirovskaya@marka.moscow	
행사				

2019년 제5회째를 맞이한 우랄 인터스트리얼 비엔날레는 러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아닌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랄주에서 2010년 시작되어 현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비엔날레로 성장하였다. 비엔날레는 매2년마다 우랄주의 주도인 예카테린부르크를 비롯하여 주 내의 여러 중소도시들을 포함하여 개최된다.

비엔날레는 20세기 러시아의 공업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다소 쇠락한 우랄 주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성의 현재적 의미를 현대미술을 통해 찾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산업이라고 하는 현상의 예술적 차원의 연구와 이해를 통해 산업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비엔날레의 의도이자 목표이다. 참여 작가들은 지역 작가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러시아 현대미술 뿐 아니라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또한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현재 가동중인 산업현장에서의 전시를 통해 산업과 현대미술의 현재적 공존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이 우랄 인터스트리얼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비엔날레는 메인 전시 뿐 아니라 여러 평행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다. 메인 전시는 러시아의 산업문화유산, 또는 산업기념비라고 부를만한 지역인 우랄 노동자 인쇄소 (Ural Worker's Printing House), 이세티 호텔 (Iset Hotel) 등 구축주의 건축물에서 개최되며 이는 구축주의 연구자들의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하였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메인 전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동중인 산업 현장에서 진행되며 우랄 지방의 제조업과 아티스트들이 협업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급속히 성장하여 러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우랄 인터스트리얼 비엔날레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보급한다면 한국 작가들의 새로운 진출 경로이자 예술적 성장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비엔날레는 참여 작가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상호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